코로나 관련된 식품안전 궁금증

오 세 욱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국민대학교 교수

코로나의 광풍이 5월 말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불고 있다. 쿠팡과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다시 사회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번 사태로 많은 사람이 택배나 새벽 배송으로 배달된 상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새벽에 식재료를 배송받는 것이 어느덧 일생이 되어버린 현재, 식품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냐는 궁금증도 많다.

올해 초 일찍이 중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할 때 WHO에서는 중국에서 받은 소포와 편지를 통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에서 최대 3시간, 구리에서 최대 4시간, 판지에서 최대 24시간,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강에서 72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실험실적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 유명한 NEJM(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되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 종이로 만들어진 택배 상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루 동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미국 존스홉킨스 건강센터는 바이러스가 살아남으려면 적당한 기온과 습도는 물론, 자외선을 피해야 하는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에 택배 상자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초스피드 배달로 24시간 이내 가정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일반 국민은 누구에게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식품안전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교수 및 연구원, 국가 식품안전 정책을 이끄는 공무원, 그리고 국가 식품산업 안전을 책임지는 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집단지성의 사회적 책무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생각, 미신과 가짜 정보가 판치고 있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간의 생각의 간극과 이해의 폭도 차이가 크다. 코로나와 관련된 식품안전 궁금증은 물론이고 일반 식품안전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줄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식품과 식품안전에 대해 올바른 지식 전달을 포함한 Risk communication의 전문적인 지식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할 수 있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